

사설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요즘 지역에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을 올려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마을에서는 한 때 집단적으로 정부 추곡수매를 거부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또 오대벼만을 매입하는 고성쌀농협 법인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산물벼 형태로 가마당 5만1천원에 매입시켰는데, 정미소에서는 6만원까지 쳐주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농민은 산물 오대벼 500가마를 농협에 매입시켜, 결과적으로 45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호소했다.

정부 공공비축미의 경우 40kg 한 가마당 1등급 기준으로 4만7천원인데, 정부미로 많이 매입시키는 윤광벼의 경우 정미소에서는 5만5천원에 사들여 가마당 8천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 1월말께 보전금이 지불된다고 해도, 최

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시세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배정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내년 매입에 피해가 우려돼 '올며 겨자먹기' 식으로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정부 수매에 대해서도 원성의 목소리가 높지만, 고성지역 3개 농협

일부 농민들은 내년부터는 정부 수매는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농협 수매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도높게 물만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부터 이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 고성쌀농협법인의 오대벼 매입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과 지역 정미소의 말을 종합해

그러나 농협은 매년 적자라고 밝히면서도 제조경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등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힘없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래전부터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협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라는 탄식의 소리가 지금 농민들 사이에서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농협 임원들이 기관단체장 회의나 각종 행사에 참석해 품위를 유지하고 직원들이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호위호식하는 동안, 농민들은 한톨의 살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 땀흘려 일하면서도 농협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정부와 농협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쌀값 현실화 요구 목소리 귀기울여야

이 연합해서 만든 고성쌀농협법인에 대해서는 더욱 큰 불만을 보이고 있다. 농협은 윤광벼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적고 맛이 좋은 오대벼만 매입하고 있다. 그런데 정미소보다 가마당 9천원이나 싸게 사들이면서도 매년 적자라고 하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농민들의 반응이다.

보면 고성쌀농협법인이 정미소보다 가마당 9천원이나 싸게 사들이면서도 적자를 보는 것은 제조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거나, 수입이 한정되어 있다면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최남자는 치국누전이란 의미에 대해 “나라를 다스리는 술법은 농부가 밭을 갈때는 것같이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제거함에 있다”고 말했다.

신의 형상을 타고난 사람은 동물중의 최영자요, 오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생명력을 지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즉 얼, 혼, 영, 백, 뇌 정신적 지능 이성을 지닌 육적인 존재로서 언어 도구를 사용한 만물을 지배하는 영장이라는 것.

모든 신은 정명(精明 : 깨끗하고 맑음)이라 한다(영. Pop : 인간론). 이는 영장답게 살아가는 오행중의 수기(秀氣)이요 원정(原精)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참사랑이고, 선악과 정사를 준별하는 양심에 따른 도덕중심의 기준이 된다.

얼을 찾아가는 길은 참다운 생명의 길이다. 낙과된 과실이 다시 살아나는 새생명의 길이라는 것. 그것은 신묘 불가사의한 일이나 만물의 생을 유지하는 근본인 것이다.

사람이란 사람됨을 원하지 않는 이는 없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는 길이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은 가기 싫은 길이다. 그 “생의 길은 짧고 맑은 오래 남는다”는 의인들의 말은 뜻이 있고 값있는 그 생활 모습을 배우게 된다.

생각하건데 인간사의 희을 구고 갔던 고행 속에서 자비를 체험한 석가여래의 길, 십자가 선상에서 사랑을 실천했던 예수의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내가 찾아가는 길

순교, 노장자의 예학, 공맹의 실천 예학 등은 후예들에게 길벗이 되었고 실천철학이었으며 생의 철학의 본보기이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는 대표적 모범적인 등불이요 햇불이며 사표이라 할 수 있는 헬렌켈러와 인류에게 이기문명의 영향을 주었던 사상가와 과학자 등과 자기자리를 묵묵히 지키어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생활에 길잡이다. 성인의 사랑의 빛이요 인자한 상징이 되는 아버지의 자비이다. 그리고 사상가들의 숭고한 시대정신과 아름다운 사회, 명량한 사회에 공헌한 석학과 철학자들은 국가사회를 위한 수행자로서 오늘의 문명 문화를 꽃피게 하였다는 것.

국가사회에 충성과 부모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효성 전자는 적성성덕이요, 후자는 인소가행도리로 집약된다.

이러한 국가사회윤리와 가정윤리로서

애국애족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선각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 우리들이 보답이자 할 일이다.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웃들과 선의경쟁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모든 활동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의경쟁을 할 것인가. 이성을 찾아 현실에 맞는 실천으로 옮겨지는 행동이다. 오로지 자기마음에서 찾는다는 것. 한 걸음 나아가 실제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의 좌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마음과 가슴에 있고 오장육부에 참여하게 숨을 쉬고 있다 할 것이다. 인생의 길은 저마다 인격을 소유하면서 이상적 가치와 바른 지식, 윤리적 경제활동은 격조 높은 격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의 실천행동의 과제라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사회는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 좌충우돌 방황하는 나그네이자 부랑인 또는 노숙자가 아니던가. 지구 마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간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생태계 파괴 동식물의 종이 멸하게 하는 동시 내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하겠다는 것.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폭탄테러사건 리비아의 정치불안 동남 서남 아세아의 기근 아프리카의 기근기갈 터키 일본 등의 대지진 미국의 토네이도 폭설 등은 자연재해의 업보, 인재의 응보 모두 사람의 행위로 일어난 사건들이다.

9.11테러사건 일본 원전 방사선 누출사건 체르노빌 후쿠오카 원전사고로 우리나라 누출, 카이로 주재 한국대사관 KALL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 한국선박에 대한 소말리아 해적들의 수없는 해적행위 등등을 잊고 있고 있다.

일찍이 경행록에 이르기를 “명조지사(좋은 아침입)는 박모(땅거미)에 불가필이요 박모지사는 포시(3~5시사이)에 불가필이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이긴 생물은 없으나 순간을 피하여 사는 동물은 있는데, 인간만이 알 수 있거나 없거나 미래의 일은 철학과 같으므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지혜를 모아 잃었던 일을 찾아서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편집국에서

최근 고성지역의 오래 된 민원 몇가지가 순조롭게 풀리면서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대리 포사격훈련장 문제를 비롯해 민통선 북방 휴경지 개간 허가 문제, 현내면 초도항 통문 상시 개방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들 민원의 공통점은 군부대와 관련되어 있

어서, 지역 주민들이 접경지역으로 인하여 피해가 많다는 것을 다시한번 인식하게 된다. 아울러 민원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권익위에 호소하는 일이 많아질 것 같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